

머니투데이

미래 식품·외식분야 청년대상 원스톱 컨설팅

농식품부·aT, 식품산업 청년 일자리성공 종합 지원 과정 운영…13일부터 농식품미래기획단 커뮤니티 카페 등서 접수

농림축산식품부가 식품·외식분야 청년 일자리 양성을 본격화 한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식품·외식분야 취·창업을 지원하는 청년·대학생 대상 '식품산업 청년 일자리성공 종합지원' 과정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국내 식품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률은 타 산업에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특히 고학력 인력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외식 분야에 취·창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들에게 취·창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식품 산업 분야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식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식품산업 청년 일자리성공 종합지원' 과정은 식품산업 분야에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대학생)을 모집해 권역별로 총 5회에 걸쳐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국내 주요 식품기업 인사담당자 초청한 채용설명회, 토크콘서트(Q&A), 면접·자소서 컨설팅 등 식품기업 맞춤형 취업특강, 농식품 청년소통 TED형 강연,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식품기업탐방 등으로 구성됐다.

TED형 강연은 식품산업 취·창업 분야의 명망가 특강을 통해 스마트팜 및 푸드테크 등 식품산업의 미래 발전방향과 식품 산업 분야 청년 성공 창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로 강연 내용은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공유할 계획이다. 지난해 4회 운영하던 것을 올해는 4개 권역 총 5회에 걸쳐 강원·충청권(6월), 영남권(7월), 호남권(8월)에서는 각 1회씩 진행한다. 수도권의 경우 10월에 2회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많은 대학생들이 취·창업 등 일자리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TED형 강연 및 식품기업 인사 담당자와의 토크콘서트' 등 일부 교육과정을 '2019 대한민국 식품대전'(양재 aT센터, 10.23~25일)과 연계해 400석 규모의 '그랜드 훌'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과정에 참여할 청년(대학 3~4학년)들의 모집은 오는 13일부터 농식품미래기획단 커뮤니티 카페(cafe.naver.com/yaff), 지역별 대학교 취업지원센터 및 식품산업 전공학과 게시판 등을 통해 진행한다.

농식품부 김덕호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산업 청년 일자리성공 종합지원 과정은 식품·외식기업에는 준비된 우수인재 유입 기회를 제공하고 식품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식품 분야 취업역량을 키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혁수 기자

뉴스

식품·외식분야 취·창업,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된다면?

농식품부, 6~10월 대학 3~4학년생 대상 교육과정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8일 식품·외식 분야에 취·창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 산업 청년 일자리 성공 종합 지원'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교육 과정의 취지와 관련해 "청년들에게는 식품 분야 취·창업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식품 산업 기업에는 우수 인력 유입을 촉진해 식품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교육은 국내 주요 식품 기업 인사 담당자 초청 채용 설명회와 토크콘서트(Q&A), 면접·자소서 컨설팅 등 식품기업 맞춤형 취업특강, 식품 산업 취·창업 분야 유명 인사의 테드(TED)형 강연,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식품 기업 탐방 등으로 구성된다. TED형 강연 내용은 영상으로 제작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서도 공유될 예정이다. 1박2일 합숙 과정이다. 강원·충청권(6월), 영남권(7월), 호남권(8월) 등 4개 권역에서 각 1회씩 진행된 후 10월에 수도권에서는 2회 운영된다. 수도권에서는 특히 TED형 강연과 인사 담당자와의 토크 콘서트 등 일부 교육 과정을 오는 10월 23~25일 양재 aT센터에서 열릴 '2019 대한민국 식품대전'과 연계해 진행한다.

교육 과정에 참여할 대학 3~4학년생들은 오는 13일부터 농식품미래기획단 커뮤니티 카페(cafe.naver.com/yaff)와 지역별 대학교 취업지원센터, 식품 산업 전공 학과 게시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차수별로 150명 이상을 모집해 총 800명을 모집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품 제조업의 인력 부족률은 3.8%로 제조업(2.2%)이나 음료제조업(2.8%)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대졸 종사자 비율이 제조업에선 40%인데 비해 식품 제조업에선 26.8%에 그쳐 고학력 인력의 유입도 부족한 상황이다.

장서우 기자

연합뉴스

05월 08일

농식품부, 식품기업 취업·창업 지원 과정 운영



세계 수산식품 한자리에

사진은 지난 4월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에서 방문객들이 수산물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청년들의 식품·외식 분야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식품산업 청년 일자리성공 종합지원' 과정을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과정은 식품산업 분야에 진출을 희망하는 대학생 등 청년을 모집해 권역별로 총 5회에 걸쳐 1박 2일 일정으로 운영된다.

국내 주요 식품기업 인사담당자를 초청한 채용설명회와 토크콘서트(Q&A), 면접·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식품기업 맞춤형 취업특강과 농식품 청년소통 테드(TED)형 강연,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식품 기업탐방 등으로 구성된다.

강원·충청권(6월), 영남권(7월), 호남권(8월)에서는 이 과정을 각 1회, 수도권에서는 10월에 2회 운영한다.

참가자 모집은 오는 13일부터 농식품미래기획단 커뮤니티 카페(cafe.naver.com/yaff)와 지역별 대학교 취업 지원센터, 식품산업 전공학과 개시판 등에서 진행한다.

김덕호 식품산업정책관은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률은 타 산업에 비해 높고 고학력 인력의 유입 또한 부족한 실정"이라며 "우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해 식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를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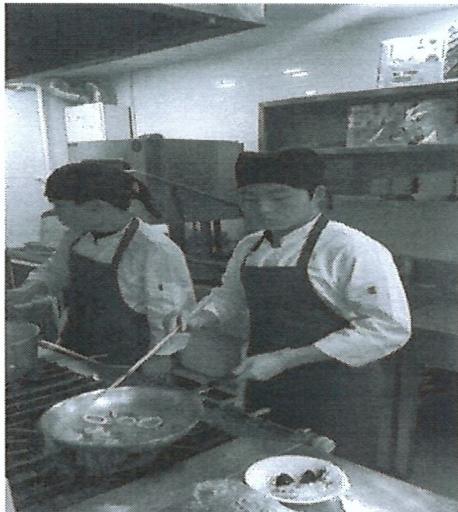
박성진 기자

이데일리

05월 08일

농식품부·aT, 식품 취업희망 대학생 800명 대상 1박2일 교육

6~10월 다섯 차례·식품기업 인사담당자 초청 설명회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식품분야 취업 희망 청년(대학 3~4학년생) 800명을 대상으로 1박2일 교육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식품산업 인재 육성 차원에서 매년 이 같은 '식품산업 청년 일자리성공 종합지원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6~10월 사이에 권역별로 1박2일 합숙 교육을 받게 된다. 강원·충청권은 6월, 영남권은 7월, 호남권은 8월, 수도권은 10월 중 두 차례 진행한다. 교육 대상자 수는 지난해와 같지만 교육 횟수를 4번에서 5번으로 늘렸다.

국내 주요 식품기업 인사담당자를 초청해 채용설명회를 열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면접·자기소개서 컨설팅과 TED형 강연,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식품기업 탐방 등 일정이 있다.

참가 희망자는 5월 13일부터 포털 네이버의 농식품미래기획단 커뮤니티 카페나 지역별 대학교 취업지원센터, 식품산업 전공학과 개시판 공고를 참조해 지원하면 된다.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 외식기업에는 우수 인재 유입 기회를 제공하고 취·창업 희망 청년에게는 취업역량 강화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욱 기자

MTN

농식품부, 식품산업 청년 일자리
종합지원 과정 운영

05월 08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이병호 사장, 이하 aT)는 청년(대학생)들의 식품·외식 분야 취·창업을 지원하는 식품산업 청년 일자리 성공 종합지원 과정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출하액 기준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6.9%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지만, 타 산업에 비해 인력부족률(3.8%)이 높고, 고학력 인력도 부족(대출증사자 26.8%)한 실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취·창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 식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원 과정은 식품산업분야에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대학생 등)을 모집하여 권역별로 총 5회에 걸쳐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800명으로 각 차수별 150명 이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강원·충청권(6월), 영남권(7월), 호남권(8월)에서는 각 1회씩 진행되며, 수도권의 경우 10월에 2회로 확대·운영한다. 교육내용은 식품기업 인사담당자 초청 채용설명회 및 토크콘서트, 면접·자소서 컨설팅, 농식품 청년소통 TED형 강연,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으로 구성된다.

TED형 강연은 식품산업 취·창업 분야 명망가의 특강을 통해 스마트팜 및 푸드테크 등 식품산업의 미래 발전방향과 식품 산업분야 청년 성공 창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다. 이번 과정에 참여할 청년(대학3~4학년) 모집은 오는 13일부터 농식품미래기획단 커뮤니티 카페와 지역별 대학교 취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진행한다.

유찬 기자

매트로신문

농식품부, 청년 대상 '식품산업 취·창업 종합지원 과정' 운영

05월 0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6월부터 식품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취·창업지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6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권역별로 총 5회(1박2일 합숙)에 걸쳐 실시되는 '식품산업 청년 일자리성 공 종합지원' 과정은 국내 주요 식품기업 인사담당자 초청 채용설명회 및 토크콘서트(Q&A), 면접·자소서 컨설팅 등 식품기업 맞춤형 취업특강, 농식품 청년소통 TED형 강연,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식품기업팀방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TED형 강연은 식품산업 취·창업 분야의 명망가 특강을 통해 스마트팜 및 푸드테크 등 식품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과 식품 산업분야 청년 성공 창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로 강연 내용은 영상으로도 제작해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과정에 참여할 청년(대학 3~4학년)들의 모집은 5월 13일부터 농식품미래기획단 커뮤니티 카페(cafe.naver.com/yaff), 지역별 대학교 취업지원센터 및 식품산업 전공학과 개시판 등을 통해 진행한다.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식품·외식기업에는 준비된 우수인재 유입 기회와 식품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식품분야 취업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웅 기자

세계일보

06월 25일

aT, 식품분야 취준생들 모여라!



2019 일자리성공패키지(1차)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aT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식품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난 20일과 21일 대전에서 2019년도 제1차 '일자리성공패키지'를 열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일자리성공패키지는 식품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식품분야 특화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열린 제1차는 강원·충청권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영남권, 호남권, 수도권에서도 일자리성공패키지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강원·충청권 일자리성공패키지에서는 첨단기술과 식품산업이 접목된 푸드테크기업 '쿠캣' 이문주 대표와 '식신' 서비스사업부 정구임 본부장이 강연을 통해 청년들에게 식품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창업 노하우를 전수했다.



2019 일자리성공패키지(1차) 현장 모습 사진=aT제공

특히 사전 설문조사 결과, 청년들의 희망수요가 식품분야 취업(81%), 외식분야 취업(11%), 외식 창업(1%)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면접?자소서 컨설팅, 식품기업 인사담당자 토크콘서트 등 맞춤형 역량강화교육 위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aT 관계자는 "SPC, 아워홈, CJ푸드빌, 풀무원푸드앤컬처 등 국내 주요 식품기업의 채용설명회, 인사 담당자 Q&A, 하이트진로 기업탐방 등에 청년들의 호응이 높았다"고 전했다.

aT 이병호 사장은 "일자리성공패키지를 통해 우수한 청년들이 식품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바란다"면서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일자리성공패키지 올해 4개 권역에서 총 5회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영남권(7월), 호남권(8월)에서는 각 1회씩 진행되며, 수도권은 10월에 2회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다.

지차수 기자